투데이 칼럼

북한 면회소 마저 철거

정 복 규

논설위원

북 쪽에 있는 우리 시설들을 잇달아 철거해 온 북한이 이번에는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마저 철거하고 있다.

남북 간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래 전 이산가족 면회소에서는 피난길에 4살 아들의 손을 놓친 어머니가 일흔이 넘는 노인이 되어 나타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60여 년 만에 엄마를 만난 두 딸은 복받치는 설움을 쏟아냈지만, 노모는 한 맺힌 세월에 눈물마저 말라 버렸다.

남북협력기금 550억 원을 들여 2008년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9년부터 10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활용됐다. 총 다섯 차례, 4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눈물의 상봉을 했고,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기약 없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산가족의 염원이 담긴 이 건물조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위성사진을 살펴보니, 건물 지붕이 뜯겨나가고 바닥의 보도블록 또한 일부 사라진 흔적이 보인다. 열 달 전 철거된 소방서 터에는 새로운 공사 동향이 포착됐다.

북한이 더 이상 남북한 관계를 민족의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면 이산가족 문제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산가족이란 문제를 다룰 명분도, 이유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행동이다.

2019년 10월, 금강산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이 너절하다며 철거를 지시한 이후이 일이다. 북한은 해금강호텔과 온정각, 구룡빌리지와 소방서 등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 시설들을 철거해 왔다.

사실상 마지막 건물인 면회소까지 해체되면,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러한 철거를 통해서 인민들에게 남측과 관계 개선을 한다든가 한민족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일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고 있다.

남측 건물을 부순 자리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휴양 시설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를 단절하려는 북한의 행보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해 아버지 김정일 시대 남북 경협을 비난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TV는 2019년 10월 "김 위원장은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더 이상 선대의 통일 유훈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통일 노선 전환을 앞두고 취해졌던 내부 단속용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안보 전문가들의 80%가 계기가 있다면 북한이 대남노선을 전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분간 북한은 적대적 2국가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스스로가 이를 발표했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북한이 다시 높게 평가한다면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남 전술 혹은 대남 전략을 조금 바꿀 여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북한이 적대적 대남 노선을 전환하게 될 계기로는 김정은 유고 등 급변 사태부터 남한의 정부 교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 북미 관계 개선 등 여러 견해가 제기됐다.

이중 북미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 여부가 북한 대남 전략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다.

지금 북한의 관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원한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가 희망하는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한다든가 또 부분 비핵화로 자신의 핵보유를 유지하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블랙핑크 리사, 아카데미 시상식서 007 주제곡 열창

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2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007' 시리즈 주제곡 '리브 앤 렛 다이(Live and Let Die)'를 부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기념 촬영하는 찰스 3세 국왕

찰스 3세(왼쪽) 영국 국왕이 2일(현지 시간) 영국 노퍽 샌드링엄 영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 설

은행 LTV 담합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해당 은행들은 담보 대출 조건을 평가할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공정위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신한은행 본사에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4개 은행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당시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 대출 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은행들은 위험 관리를 위한 관행일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당초 지난해 말쯤 재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제재 결정을 내리는 대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은행 현장 조사는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해 재조사하기 위한 시작 단계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도 곧 시작될 걸로 보인다. 은행권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기 바란다.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신통일한국을 위한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2025 정기총회'가 2|난 2월 19일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소재 전북 UPF 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우수활동 지회로 정읍시지회와 남원시지회에 시상이 이루어졌다.

우수 회원으로는 김순자, 일문례, 정호진, 김복희, 임영숙 회원에 대한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신규 고문으로는 차오석, 민규식, 박천규, 김대섭, 이혜희, 김숙정, 자문위원으로는 김종수, 임철현, 부회장으로 김재근 이양선 이정만 임병오 이재수 송일섭씨 등이 위촉되었다.

회칙 개정을 통해 전북 평화통일 운동 확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관 단체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지회와 사안에 따라 통합 운영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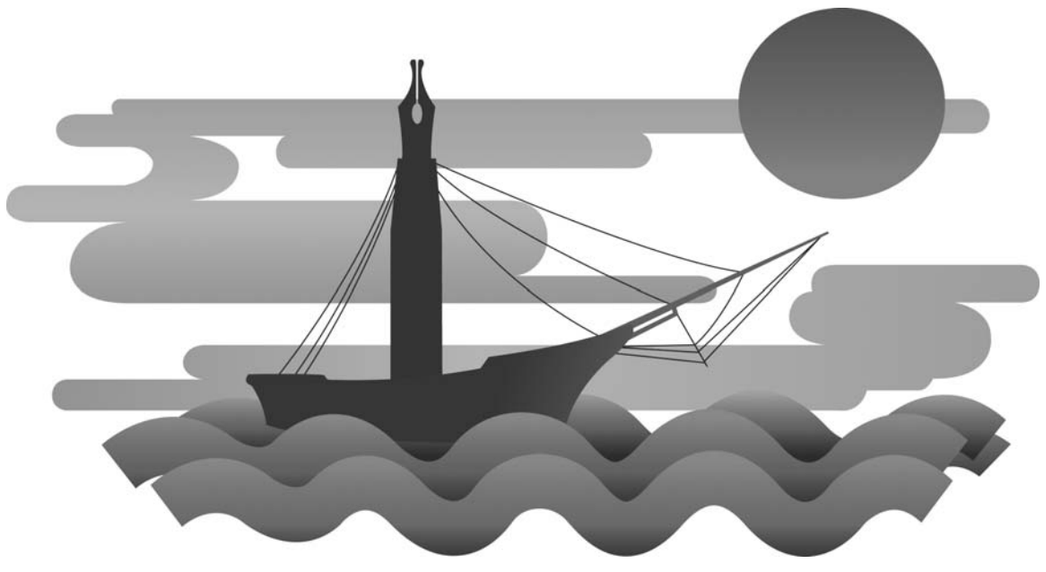
또한 전북 남북·평화통일지도자협의회는 고문으로 이상칠(1대), 강상원(2대), 김옥길(4대), 이근재(5대)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추대 발표되었다.

신백식 자문위원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자문위원, 그리고 김금남 세계평화여성포럼 전북회장 등 유관 각 단체 회장단 22명, 14개 시군 유관 회장단과 함께 각기 사정에 따라 소정의 분담금을 부담하며 제반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하였다.

평화통일 임원들은 지난 한해도 및 각 시군의 어려운 현장에서도 평화통일 운동을 헌신적으로 선도해왔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신통일한국을 향한 제반 평화통일운동을 전개 확산시켜 나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

특히 미국을 중심한 국제질서 개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더욱 신통일한국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